

4·11총선·보선 격전지 여론조사

광주서갑·나주화순 1, 2위 격차 더 벌어져

양형일 후보 선두 고수...박주선·이병훈 맹추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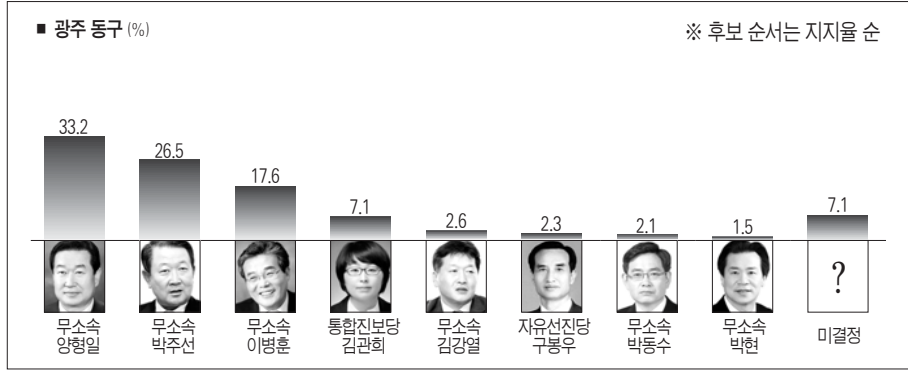
박혜자 30%대 오르며 선두...11.3% 부동층 변수

광주 동구

무소속 양형일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박주선·이병훈 후보가 추격중인 것으로 조사됐다. 양 후보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33.2%의 지지율을 얻으며, 26.5%의 무소속 박주선 후보를 오차범위(±3.1%포인트) 밖인 6.7%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. 양 후보와 박 후보는 지난달 27일 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각각 0.8%포인트, 0.9%포인트 소폭 상승했다.

양 후보와 박 후보는 광주일보의 3차례(1월20일·2월15일·3월27일)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엇치락뒤치락 박빙의 승부를 펼쳐왔다. 양 후보는 30대(40.3%)와 60세 이상(38.5%)에서, 박 후보는 40대(31.2%)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.

무소속 이병훈 후보는 이번 여론조사에서



17.6%의 지지율을 얻으며 두 후보를 추격했다.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본보 여론조사에 비해 1.3%포인트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 특히 19세·20대(28.8%)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. 이번 조사가 집전화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 20대층이 실제 투표에서 결집할 경우 이 후보의 막판 추

격전도 주목된다. 3명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10% 미만의 지지율을 보이며, 선두권과 큰 격차를 보였다. 통합진보당 김관희 후보는 7.1%, 무소속 김강열 후보 2.6%, 자유선진당 구봉우 후보 2.3%, 무소속 박동수 후보 2.1%, 무소속 박 현 후보가 1.5%의 지지율을 얻었다. 아직까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응답자는 7.1%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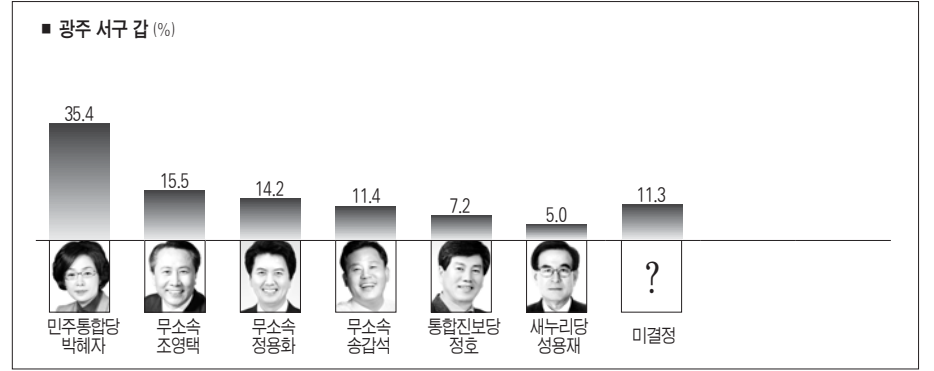
광주 서갑

민주통합당 광주·전남 유일 여성후보인 박혜자 후보가 35.4%의 지지율로,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어 무소속 조영택 후보가 15.5%, 무소속 정용화 후보가 14.2%, 무소속 송갑석 후보가 11.4%로, 3명의 후보가 오차범위(±3.1%포인트) 내에서 중위권을 유지하며 박 후보를 뒤쫓고 있다. 통합진보당 정 호 후보와 새누리당 성용재 후보는 각각 7.2%, 5.0%의 지지율을 보였다.

박빙의 승부처답게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응답층이 11.3%에 달했다.

박 후보는 민주통합당 경선 전인 광주일보 2월15일 여론조사에서 6.3%의 지지율로, 민주당 경선 후보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지만, 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뒤인 지난달 27



일 본보 여론조사에서는 23.3%로 상승하며, 무소속 조영택(20.7%) 후보와 오차범위 내인 2.6%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벌였다.

이번 조사에서 1·2위 후보의 격차가 커진 것은 최근 한명숙 대표, 박지원 최고위원 등 민주통합당 지도부들의 잇단 지원유세와 함께 민주통합당 광주지역 총선 후보들의 지원 유세 등에 힘입어 전통적인 민주당 표들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하지만, 최근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지방 의원들이 탈당까지 불사하며 조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, 무소속 송갑석·정용화 후보도 젊은 층의 표심을 적극 공략하고 있어 선거 막판 무소속 후보들의 추격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.

이정현 1위...‘일당 독점’ 지역정치 구도 깨지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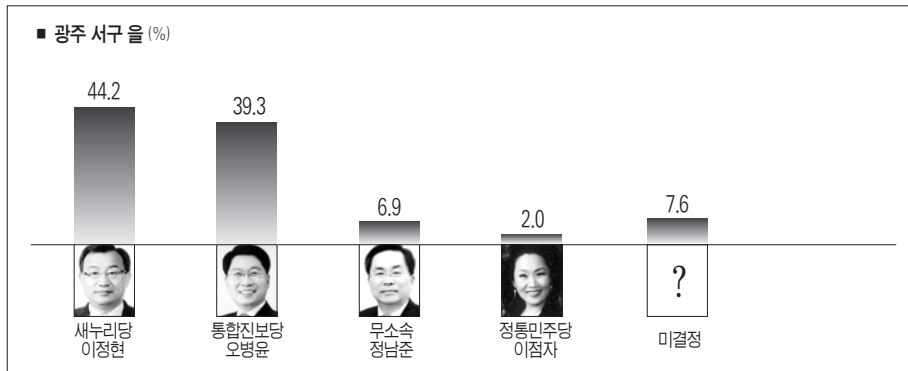
배기운·전종덕 단일화 불구 최인기 1위

광주 서을

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이 아권연대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나 27년 만에 광주의 ‘일당 독점’ 지역정치 구도가 깨질지 관심이 쏠린다.

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44.2%의 지지율을 얻어 39.3%를 기록한 통합진보당 오병운 후보를 오차범위(±3.1%포인트) 내에서 4.9%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. 무소속 정남준 후보는 6.9%, 정통민주당 이점자 후보는 2.0%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.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응답자는 7.6%였다.

이정현 후보는 지난달 27일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 34.5%의 지지율로, 오병운(30.8%) 후보를 누르고 1위로 올라서는 이번을 연출한 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오 후보와의 격차를 더욱 벌이며 1위 자리를 지켰다.



특히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월 광주일보 여론조사와 달리 무소속 서대석 후보가 사퇴하고 오병운 후보를 지지선인 한 뒤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1위 ‘수상’은 더욱 주목되고 있다. 이 후보가 본보의 3차례 여론조사 중 40%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.

하지만,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선거 운동기간 마지막 주말과 휴일에 지도부를 대거 투입하는 등 선거 막판 아권연대 ‘바람 물이’에 나시고, 모든 당원들이 집중 투입된 것으로 보여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. 오 후보는 30대에서 47.2%를 얻어 34.4%에 그친 이정현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렸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선 이 후보가 모두 앞섰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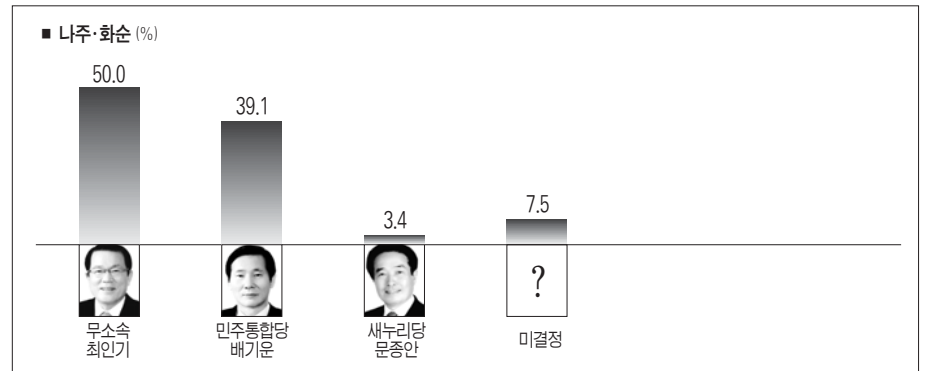
나주·화순

3선을 노리는 무소속 최인기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최 후보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50.0%의 지지율을 기록, 39.1%를 얻은 민주당 배기운 후보를 오차 범위(±3.1%포인트)를 벗어난 10.9%포인트 차로 따돌렸다. 새누리당 문종안 후보는 3.4%를 기록했다.

최 후보와 배 후보 간 격차는 8일 전인 지난달 28일 발표된 광주일보 여론조사 격차(5.4%포인트)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.

이는 조사 당일 발표된 배기운 후보와 통합진보당 전종덕 후보의 단일화 효과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. 두 후보의 갑작스런 단일화 때문에 전 후보를 배제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음에도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. 유권자 사이에 단일화



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.

또 쟁점이 되고 있는 KTX 나주 경유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.

최 후보는 나주에서 ‘53.0% 대 36.8%’로 배 후보를 따돌렸으며, 화순에서도 ‘46.0% 대 42.2%’로 앞섰다. 지난달 여론조사에서는 나주에서 최 후보가 11%포인트 차로 앞

섰지만 이번에는 그 격차가 16.2%포인트로 더욱 커졌다. 나주 유권자들이 최 후보 쪽으로 뚝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.

최 후보와 배 후보간 격차는 20대 이하에서 17.5%포인트, 30대에서 18.5%포인트, 50대에서 8.3%포인트, 60대 이상에서는 12.9%포인트였다. 배 후보는 40대에서만 45.2%를 얻어 44.1%에 그친 최 후보를 앞섰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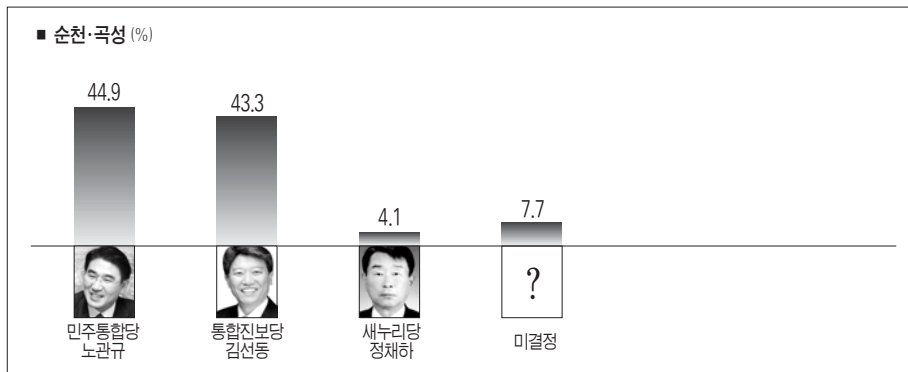
노관규·김선동 오차범위 안팎 ‘초박빙’ 접전

무소속 조충훈 선두...허정인 뒷심 주목

순천·곡성

민주통합당 노관규 후보와 통합진보당 김선동 후보 간 오차범위 내 접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이번 여론조사에서 노 후보는 44.9%, 김 후보는 43.3%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. 격차는 불과 1.6%포인트였다. 이는 8일 전인 지난달 28일 발표된 광주일보 여론조사 때 격차인 3.5%포인트보다 더 좁혀진 것이다. 새누리당 정재하 후보는 4.1%의 지지율을 얻었다.

순천에서 노 후보는 43.9%를 기록, 45.3%의 지지율을 얻은 김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다. 지난달 말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인 0.9%포인트 차로 앞섰었다. 결국, 순천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. 순천 구도심에서는 노 후보가 다소 앞섰지만 양



조 1, 2등으로 대표되는 신도심과 승주읍·주암면 등에서는 김 후보가 ‘51.3%대 36.5%’, ‘48.2%대 41.6%’로 각각 노 후보를 크게 앞섰다.

뒤늦게 이 선거구에 편입된 곡성에서는 노 후보가 53.1%의 지지율로 27.4%를 기록한 김 후보를 압도했다.

순천·곡성에서는 통합진보당 지지율이 16.4%나 됐다. 이 지역구에서는 통합진보

당의 유일한 전남 지역구 의원인 김선동 후보가 민주당 노관규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다.

연령대별로는 5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65.3%, 60대 이상은 64.3%나 됐다. 반면, 20대 이하의 민주당 지지율은 53.5%로 간신히 절반을 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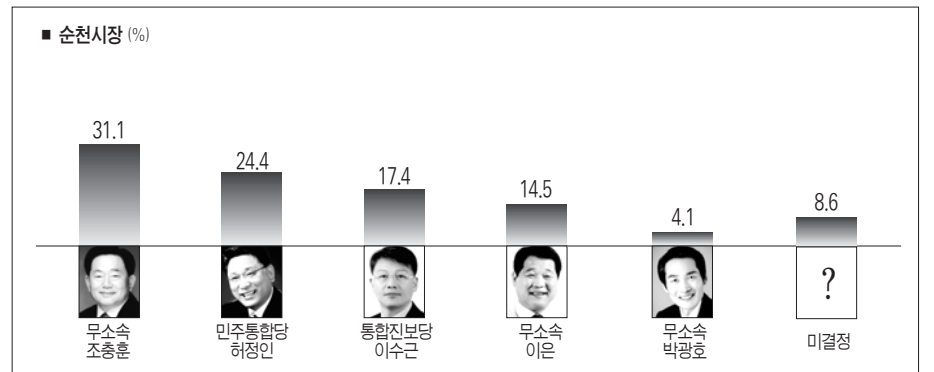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순천시장

무소속 조충훈 후보가 민주통합당 허정인 후보를 오차범위(95% 신뢰수준에 ±3.3%포인트)를 살짝 벗어난 6.7%포인트 차로 제치며 선두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.

조 후보는 31.1%, 허 후보는 24.4%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으며 이어 통합진보당 이수근 후보가 17.4%, 무소속 이은 후보가 14.5%, 무소속 박광호 후보는 4.1%의 지지율을 뒤를 이었다.

조 후보와 허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광주일보 여론조사보다 더 벌어진 것이다. 당시에는 조 후보가 24.9%, 허 후보가 23.7%를 기록, 지지율 격차는 1.2%포인트에 불과했다. 과거 순천시장을 지냈던 조 후보의 조직력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.



이런 상황에서 막판 ‘민주당 바람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가 최종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라 전망이다.

지역별로 조 후보는 신도심인 왕조 1, 2동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허 후보를 6~10%포인트 격차로 앞섰다. 왕조 1, 2동에서는 ‘27.4%대 25.4%’로 그 격차가 2%포인트에 불과했다. 연령대별로 50대 이상에서는 조 후보가 상대적으로 큰 격차로 앞섰으나 20~30대에서는 혼전 양상이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 20대 이하 층에서 허 후보가 30.7%로 선두를 차지한 가운데 조 후보가 23.5%, 이수근 후보가 22.9%의 지지율을 뒤를 이었고, 30대에서는 조 후보가 28.8%, 이수근 후보가 26.4%, 허 후보가 19.6%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.

비례대표 선출 정당투표는?

민주통합 59.7% 굳건한 1위

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의 기준이 되는 정당지지율은 민주통합당이 59.7%로 굳건한 1위를 차지했다.

5개 선거구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, ‘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는 어디에 하겠냐’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을 선택한 응답자가 59.7%나 됐으며 통합진보당이 11.7%, 새누리당이 9.6%로 뒤를 이었다. 정통민주당은 2.5%, 진보신당은 1.8%, 자유선진당은 1.5%였다.

지역별로 광주 서구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평균보다 높은 13.6%로 눈길을 끌었다. 이곳은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다. 서구갑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5개 선거구 중 가장 낮은 56.8%였다.

순천·곡성에서는 통합진보당 지지율이 16.4%나 됐다. 이 지역구에서는 통합진보

여론조사 어떻게 했다

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일보와 KBC 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‘리서치뷰’(대표 안일원)에 의뢰해 공직선거법상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지난 3~4일 양일간에 걸쳐 이뤄졌다.

이번 조사는 ARS RDD(Random Digit Dialing·임의번호 걸기) 방식으로 광주·전남지역 4·11 총선 격전지 5곳과 순천시

RDD방식 적극 투표층 5000명 유효표본 대상

장 보결선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. 총선 격전지 5곳은 광주 동구와 서구 갑, 서구 을, 전남 나주·화순, 순천·곡성 등이다.

조사 대상은 각 선거구별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적극 투표층 1000명씩으로 총 5000명의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했다.

응답자 중 ‘투표하지 않겠다’고 응답한 유권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.

이번 조사의 평균 표본 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1.4%포인트며, 각 선거구별로는 95% 신뢰수준에 ±3.1%포인트다. 순천시장 보결선거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3.3%포인트다.

/최원일기자 cki@kwangju.co.kr